

마음의 영성

이나시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왕의 부르심」이라는 관상에서 말한다. 첫째 응답은 판단력과 이성을 지닌 사람에게서 나오는 응답이고, 둘째는 마음이 관대하고 큰 사람에게서 나오는 응답이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응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나시오는 스무 개의 「일러두기」 사항으로 영신수련을 시작한다. 여기에는 수련들의 목적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영신수련을 주는 이들을 위한 조언과 권고 사항이 담겨 있다. 이 “예비 도움 말”들 중 첫 번째 일러두기는 영신spiritual 수련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해 준다. 신체적 수련은 몸의 상태를 조율해 주고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나시오는 영신수련이 “하느님의 사랑에 더욱 충실하게 응답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데에 유익하다고 기술한다.

여기서 이나시오가 말하지 않은 것에 주목해 보자. 이나시오는 영신수련이 우리의 이해력을 심화하거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않았다. 또한 영적 신비를 설명해 주거나 우리의 정신을 조명한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영신수련을 함으로써 지성적 이해가 증대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목

적은 아닌 것이다. 영신수련의 목적은 응답, 특별한 응답을 하는데 있다. 이나시오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응답이다.

“마음”이란 (그 안에 감정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감정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우리 존재의 핵심이 되는 내적 기원을 가리킨다. 이 “마음”은 예수님이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마태 6,21)고 말씀하시며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고 가르치실 때 언급하신 바로 그 “마음”이다. 또한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 증언, 중상이 나온다.”(마태 15,19)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시던 바로 그 “마음”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시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마태 15,8)고도 말씀하셨다. 영신수련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온전한 응답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사용된 “마음”의 오래된 의미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쓰는 말에서도 이런 의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에게 마음이 가는군요.”라고 말한다면 이는 어떠한 염려의 느낌 이상인 것이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연대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지성적 차원에서) “나는 이해합니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느낌 차원에서) “나는 측은히 여깁니다.”라

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 말은 “나는 당신과 함께합니다.”라는 뜻에 가깝다. 즉 내가 내린 근본적 선택의 표현인 것이다.

우리는 흔히 어떤 프로젝트에 열정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두고 “그는 거기에 마음이 없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깊은 열망desire과 상충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두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한다. 또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어떤 일을 한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에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한다. 이냐시오가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그 “마음”이다. 이냐시오 영성은 우리의 마음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두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냐시오의 “마음”에 대한 이해는 자신에게 일어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부상에서 회복하는 동안 그는 깊은 회심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지성이나 의지의 회심이 아니었다. 회심하기 전이나 후에나 그는 철저히 정통 가톨릭 신자였으며, 그가 준수해야 했던 종교적 활동을 해 왔었다. 이런 점에서 변화는 없었다. 그의 회심은 인간이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인격의 본질적 중심인 가장 깊은 열망과 투신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신앙생활과 지성적 이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심화되었다. 그러나 변형된 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었다.

여러 해에 걸쳐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또 다른 이에게 영적 지도를 하면서 이냐시오는 마음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했다. 이 마음의 언어는 하느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그 뜻에 관대하게 응답하도록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는가는 중요하다. 그러나 이냐시오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영신수련이나 영적 쇄신을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서는 유혹에 끊임없이 직면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위험은 이냐시오 영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아이디어와 개념, 원리를 설명하는 이와 같은 책에도 존재한다. 이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님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진정한 목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응답이다. 이것이 그 사람 전체를 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냐시오의 영성이 형성되던 초반기에 하느님은 몇 가지 신비적 현시들mystical visions로 그에게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 그 가운데 한 가지 현시는 이냐시오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세 가지 기도를 드려야 할지, 네 가지 기도를 드려야 할지—즉, 성부 성자 성령께 각각 기도를 드리고 다음에 네 번째로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일어났다. 그때 수도원 밖 계단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냐시오는 갑자기 오르간 건반 세 개가 동시에 연주되는 음악 소리로 삼

위일체 하느님을 “들었다.” 또 한번은 “광선이 뿔어져 나오는 어떤 하얀 것”으로 나타나시는 창조주 하느님의 현시를 경험했다. 이 하얀 것에서 하느님은 빛을 창조하셨다. 이냐시오는 삼인칭 시점으로 이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는 마음으로부터의 응답을 드렸으며 “참을 수 없이 많은 눈물이 흘렀고 흐느끼는 자신을 어찌할 수 없었다.”

이러한 마음의 응답이 영신수련의 주춧돌이다. 하느님은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며 인간은 그 사랑에 응답함으로써 하느님께 모든 것을 되돌려 드린다. 인간의 응답은 자유로운 선택이다. 우리가 응답하면 하느님의 피조물은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

영신수련의 초반부에서 이냐시오는 피정자에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하라고 한다. 이냐시오에게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원리와 기초」의 하느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이냐시오는 피정자에게 마치 “창조주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어떻게 창조하시는지를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께 말씀드리라.”고 말하는 듯하다. 이분은 추상적인 이성의 하느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랑의 하느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콜로새서와 에페소서에서 바오로 사

도가 전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바로 요한 복음 서문에서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다고 증언한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바로 요한묵시록에서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우리의 영적 여정은 “삶이란 결국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는 것이다. 이냐시오가 제시하는 답은 우리의 지력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향해 하느님이 주시는 비전이다. 이 비전이 말하는 하느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며 우리가 응답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러나 그 응답은 깊은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되돌려 드리는 자발적 선택이다. 오직 마음으로만 응답할 수 있는 비전인 것이다.